

부산비엔날레, 어둡고 두려운 세계를 비추다



홍경안 역
시사일각

올해 부산비엔날레(8월17일~10월20일)의 주제는 '어둠에서 보기'(Seeing in the Dark)다. 다양한 작업을 통해 혼란한 시대 속 내재적 불완전성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짚어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역경과 곤경,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채워진 '어둠'을 직시하고 '해적 유토피아'와 불교의 '도량' (度量)을 축으로 한 '낙관적 상상'이 핵심이다. 전시는 부산현대미술관과 부산근현대역사관, 초량재, 한성1918 등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의 반란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공포를 담은 천 샤오윈(Chen Xiaoyun)의 영상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의도와 표상의 불일치가 확연하거나 꿈보다 해몽에 가까운 작업들, 단선적 관점을 부정할 수 없는 여타 공간 전시에 비해 부산현대미술관(주 전시장)에는 비교적 흥미로운 작업이 많다. <메메디 사와(허수아비)>(Memedi sawah(Scarecrow), 2024)라는 제목의 작업을 내건 인도네시아 아티스트 그룹 타링파디(Taring Padi)도 그 중 하나다. 전통 허수아비의 자바어 용어인 '메메디 사와'

는 골판지 인형을 뜻하는 '와양 카르두스'(Wayang Kardus)와 쌀포대, 분노에 찬 사람들이 빼곡히 그려진 회화화 한 덩어리를 이룬다. 인도네시아 총선 이후 폭등한 쌀값을 이슈로 했다. 공권력의 착취적 관행과 농민 권리 박탈, 억압적인 권력 구조 등을 비판적으로 녹여냈다. 타링 파디의 작품 맞은편엔 윤석남의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2020~2023) 시리즈가 놓였다. 조선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여성독립투사 김명시,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여성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었던 박차정 지사 등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 63명이다. 역사 왜곡을 일삼는 '현대판 밀정'들이 득세하는 오늘의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정유진의 <망망대해로>(2024)도 눈에 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겪는 격차와 불평등, 기댈 곳 없는 존재들의 가냘픈 보루마저 깨지고 무너져버린 상황을 해석 난파선에 이입해 재해석했다. 문법은 단순해도 시각적 임팩트가 있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의 양민 학살부터 4·19, 민주화 항쟁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의 인물들을 거대한 구름 같은 공간에 빼곡히 새긴 신학철, 인도 카스트 제도로 억압받아 온 수백만 불가촉천민 계급을 가리는 라즈아쉬리 구디(R

ajyashri Goody), 방글라데시와 인도 내 종교적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 협업 프로젝트를 선보인 아시피카 라만(Ashfika Rahman), 벨기에와 콩고 사이의 식민지적 역사를 다룬 아요 크레 뒤사틀레(ayoh kre Duchatelet) 등도 강렬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작업으로 꼽힌다. 특히 관객을 30분 가까이 질투 같은 어둠 속에 몰아넣는 홍이 현숙의 퍼포먼스 <야행(夜行)>(2024)은 어둠에 관한 직관적 명료함을 제공한다.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어둠에서 보기'지만 전시의 중심은 그 '어둠' 자체다. 국가와 처한 입장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낙관적 상상' 보단 현실에 대한 거역성이 짙다. 그래서인지 과거 대비 비교적 비엔날레답다. 비판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어느 정도 충실하다. 다만 해석의 의미와 불교의 깨달음, 감독이 강조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작품별로 따로 노는 느낌이 크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추방된 자들임에도 높은 자율성과 포용성을 지녔다는 18세기 '해적 유토피아'의 개념에 다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분리된 금욕적 삶의 불교를 덧댄 건 다소 억지스럽다. 외국인 감독을 맡은 국내 비엔날레에서 곧잘 발견되는 심리적 모더니즘의 어설픈 이식의 결과다. /홍경안(미술평론가)

퇴직연금, 'DC형'이 이득일까



기지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퇴직연금 굴릴 때 확정기여형(DC)이랑 확정급여형(DB) 중에 뭐가 좋은 거야? 요즘은 '증권사에서 DC형 안 하면 손해'라고 하던데 맞아? 우리 회사는 DB형이래." 평소 '금융투자'와는 답을 쌓은 지인이 던진 질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우친 DB형에 쏠려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DB형 적립금은 205조3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 스스로가 운용하는 DC형 적립금

(101조4000억원)의 2배를 넘는다. 연금형태는 사측이 설정한 경우가 대다수다. '증권사에서 DC형을 택해야 이득'이라는 말이 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DB형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경향이 짙고, 금리 하락 시 수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또 증권사에 DC형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좀 더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보장된다. 금리가 떨어져도 회사가 책임지고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설령 DB형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져도 이 역시 회사가 감수할 리스크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손으로 '손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는 DB형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다. DC형의 수익률이 DB형보다 더 높다는 데이터가 이따금 보이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군가는 DC형을 잘 굴려 높은 수익률을 거뒀겠지만, 또 누군가는 예금만도 못한 수익률을 거뒀을지도 모른다. 퇴직연금 형태를 선택할 때는 연금의 본질과 자신의 투자 성향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수익률이 더 높았던 데'라는 말에 흔들릴 게 아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의 형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재정적 목표와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금융 학습이 필요하다. /zelkova@

오늘의 운세 9월 5일 (금 8월 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외출 삼가. 48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먼저이다. 60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고 마사에 순서를 정하자. 72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가져온다. 84년생 돈으로 인해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가족이다.
-  37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4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1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73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 없는 하루. 85년생 오랜만에 집 안 청소를 시작.
-  38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5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2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74년생 해피전이가 장 어두운 밤이나 다시 설계를. 86년생 아름다운 건 누구나 좋아한다.
-  39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며 산다. 51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으니 최선을 다하라. 63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5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듯. 87년생 자신의 무지함이 고(固)루 변하니.
-  40년생 딸기 같은 과일만 먹고 살 수도 없다. 52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64년생 발을 두려워하면 좋은 꿈을 얻지 못한다. 76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이다. 88년생 오늘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날이다.
-  41년생 일을 해야 현재의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 5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분에 밭이 마음속 비워라. 65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77년생 도전하는 것이 인생. 89년생 준족사장판(駿足長板)이니 움직여라.
-  42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54년생 조상님의 제사와 안부를 챙겨야 복을 받는다. 66년생 보험 중에 실비보험을 확인하자. 78년생 미래를 위해 달콤한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90년생 밑에 시끄럽게 하여 다투지 않도록.
-  43년생 남의 부러움을 많이 사는 날이다. 5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67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79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1년생 내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
-  44년생 정신이 풍요로워야 내일을 맞이할 터. 56년생 결혼은 돌이 하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여행. 68년생 책을 읽다 보면 지혜가 따라온다. 80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된다. 92년생 계속 움직여야 힘이 차지 않는다.
-  45년생 의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57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81년생 게으르지 않으면 결국엔 작은 성공이라도 하게 마련. 93년생 가재는 항상 게 편.
-  46년생 도전해서 내일의 설계를 다시 하자. 58년생 친구와 삼각관계를 만드는 일은 하지마라. 70년생 반려견이나 묘를 때리려면 키우지도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82년생 일이 생기면 적벽대전(제갈공명)책을 읽어보라. 94년생 움직이면 해결.
-  47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답이 보임. 59년생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71년생 돈에 대해 인색하다 주변에서 외톨이 신세. 83년생 인생은 무자루 한 방은 없다. 95년생 시간이 느슨하다고 결노질을 빌미로 삼지 않도록.



김상회의四季 기도, 지성이면 감천

기도라는 말만큼 논란과 오해가 많은 의미도 드물 듯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응당 믿어지면서도 기도한다고 다 될까? 하는 의심도 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순간 목적하는 사탕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세력이 작은 곳에서는 흑세무민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오지만, 그것도 아주 많이. 대형 종교에서는 신들의 뜻이라서 그런지 여하튼 세간의 인식을 탓할 수만도 없고 참으로 돈이 안 드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소망하는 것도 많다. 고통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가 올바로 서야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도와줄 수도 있으니 그런 차원의 바램이다. 중생사는 탐진치로 돌아가는 메카니즘이지만 기도는 자리아타로 회향돼야 한다. 그러기에 기도는 참회와 하심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때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의 신도들과 함께 60일마다 갑자일(甲子日)부터 칠일간 기도를 올린 적이 있었다. 기도 첫날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이라도 반드시 법당에 와서 소원 한 가지를 발원하게 했고 칠일째 역시 하루 중 되는 시간에 법당에 와서 회향하게 했다. 참여한 대부분이 경제의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처음에 기도의 주관은 필자가 했지만 그 후 혼자서도 계속 발원 기도를 지속해나가며 신심과 마음에 안정 또한 증장된다는 것이다. 기도는 좋은 방향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무턱대고 내게 되던 화도 줄어들게 되고 쓸데없는 욕심도 알아차리게 되는 힘이 세지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미 지은 불선함은 끊으려 하게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줄이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는 지혜의 힘이 증장되니 운기는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4			9
		9			6
1			3		
		2			5
7					2
3		8			
		1			4
4			7		
1		6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7	9	6	9	1
9	1	2	6	8	8	7
2	7	6	9	1	8	9
2	6	9	1	8	7	9
1	2	8	6	9	1	9
8	9	7	9	2	1	6
7	8	1	8	9	2	1
9	2	8	1	6	2	9
6	1	9	7	2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0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1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